

프랑스 vs 크로아티아 ... '20년만의 리턴매치'

16일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

프랑스, 킬리안 음바페 등 젊은피 앞세워 크로아티아, 3경기 연속 '연장혈투' 변수 14일 잉글랜드 vs 벨기에 3·4위전 격돌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이 종착역을 앞둔 가운데 대망의 결승전과 3·4위 결정전 대진이 완성됐다.

크로아티아는 12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준결승에서 1-1로 맞선 연장 후반 4분 마리오 만주키치(유벤투스)의 역전 결승 골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다.

4강 두 경기가 모두 끝나면서 마지막 결승과 3·4위전 상대도 결정됐다.

크로아티아는 오는 16일 오전 0시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프랑스와 우승컵을 다툰다.

4강전에서 패배한 잉글랜드와 벨기에에는 하루 앞선 14일 오후 11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맞붙는다.

크로아티아와 프랑스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0년 만의 리턴매치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하면서 1993년 FIFA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처음 출전해 준결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크로아티아는 6골로 득점왕에 오른 다보르 슈케르를 앞세워 8강에서 '전차 군단' 독일을 3-0으로 완파하는 등 맹위를 떨쳤다.

하지만 4강에서 만난 개최국 프랑스에 1-2로 분패했고, 3-4위전에서 네덜란드를 2-1로 제압하고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 때의 성적을 발판으로 크로아티아는 1999년에 FIFA 랭킹 3위까지 오르는 등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크로아티아는 이후 월드컵 무대에서는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본선 무대를 밟은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는 본선에 나가지 못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본선 진출에 성공했지만 역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만주키치와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 이반 라키티치(FC바르셀로나) 등 마지막 황금세대를 앞세운 크로아티아는 벨기에를 4강에서 1-0으로 꺾은 '되블레 군단' 프랑스를 상대로 설욕을 노

린다. 프랑스는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와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젊은 피들을 앞세워 1998년 자국 대회 우승 이후 20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프랑스는 하루 먼저 4강 경기를 마쳐 체력적으로 휴식할 시간을 가진 반면 크로아티아는 세 경기 연속 연장 혈투를 치러 선수들이 지쳐 있다는 점이 결승 결과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4위전에서는 잉글랜드와 벨기에가 이번 대회에서 다시 만난다.

잉글랜드와 벨기에에는 이번 대회 G조에 조별리그 3차전에서 벨기에가 1-0으로 승리하며 조 1, 2위 희비가 엇갈린 인연이 있다.

잉글랜드의 간판 공격수 해리 케인(토트넘)은 6골로 득점 부문 선두를 달리지만 두 경기 연속 득점포 침묵을 지킨 가운데 4골을 기록 중인 벨기에의 로멜루 루카쿠(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골드부트를 건 골잡이 대결을 벌여야 한다.

잉글랜드는 1966년 자국 대회 우승 선화를 재현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이고, 벨기에 역시 1986년 멕시코 대회 4위를 넘어선 월드컵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인 3위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축구 종가' 잉글랜드, 우승 꿈 무산

4강전서 크로아티아에 2-1 패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꿈꿨던 52년 만의 월드컵 우승 도전은 크로아티아의 일격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잉글랜드는 12일(한국시간)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4강에서 경기 시작 5분 만에 터진 커런 트리피어(토트넘)의 그림 같은 프리킥 선제골로 1-0 리드를 잡을 때만 해도 우승을 차지했던 1966년 자국 대회 이후 52년 만의 월드컵 결승 진출 꿈이 무르익는 듯했다.

잉글랜드는 전반까지만 해도 60%대의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전반을 1-0 리드로 마쳐 결승행 티켓 획득 기대감이 컸다.

앞서 8강에서 스웨덴을 1-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을 때 '축구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축구 종가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다르지 않았다.

영국 현지에서도 회사원들 사이에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입은 조끼 패션이 유행하는 등 우승 기대로 한껏 고무됐다.

잉글랜드는 1996년 자국 대회 우승 이후 1990년 이탈리아 대회 4위를 빼고는 결승 문턱에 가보지 못했던 터라 이번이 2014년 브라질 대회 조별리그 탈락 수도

를 털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

하지만 잉글랜드의 결승 진출 꿈은 크로아티아의 투혼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후반 초반까지만 해도 잉글랜드의 공격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간판 골잡이 해리 케인(토트넘)을 비롯한 선수들의 골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6골로 득점왕 기대를 부풀리는 케인의 2경기 연속 득점포 침묵이 뼈아팠다.

스웨덴과 8강전에서 골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케인은 크로아티아와 4강전에서도 몇 차례 득점 찬스가 있었지만 끝내 골문을 여는데 실패했다.

특히 전반 29분에는 케인이 제시 링가드의 패스를 받아 골지역 왼쪽에서 절호의 득점 기회를 잡고도 두 차례 이어진 슈팅이 모두 상대 골키퍼 다니엘 수바시치의 선방에 막힌 게 결정적이었다.

잉글랜드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크로아티아의 반격이 이어졌다. 크로아티아는 후반 23분에 나온 이반 페리시치(인터 밀란)의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간 뒤 연장 후반 4분 만주키치의 결승 골로 2-1 승리를 거두는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연합뉴스

뮤지컬·클래식·콘서트...

무더위 '문화 바다'에 흠뻑 빠져볼까

세종문화회관
번지점프를 하다·강아지똥 등
방학·휴가 맞춰 프로그램 마련

서울 세종문화회관은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뮤지컬, 클래식, 강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명의 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번지점프를 하다',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놀이극 '베토벤의 비밀노트', 여름방학 대표 클래식 콘서트 '2018 그랜드 썸머클래식', 대중을 위한 합창 콘서트 '신나는 콘서트', 청소년 성장통 뮤지컬 '오늘 하루 맑음' 등 에듀테인먼트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즐길 수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세종 꿈나무 예술탐험대' 등 예술 감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즐기며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플레이케이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한야광 포스터. /세종문화회관

북서울꿈의숲에서는 원작 동화 '강아지똥'을 무대로 옮긴 어린이 연극 그림동화와 클래식 음악을 해설과 함께 연주하는 '클래식 온 스크린&스쿨'이 준비되어 있다.

돈화문국악당에서는 전통 탈춤의 매력에 호기롭게 어우러진 '있는 그대로의

힘'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공연 포커스 '가면회'가 펼쳐진다.

성인과 직장인을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한 예술강의도 준비됐다. 르네상스의 발상지 피렌체로 떠나는 이탈리아 영화기행 '한창호의 트립 투 이탈리아',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속이야기를 시몬 불리바르 심포니 실황으로 만나는 '전람회의 그림', 인상과 화가 에드가 드가의 작품 속 실제 발레리나를 주인공으로 한 '드가의 작은 무희 이야기' 등 보고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강의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세종문화회관에는 저렴한 가격에 식사, 숙박,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한야광 패키지' 등의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서정협 세종문화회관 사장 직무대행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호기심을 채워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1 | 해질 19:54

7월 13일
음력: 6월 1일

수도권 날씨
32~24°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23/31, 동두천 23/32, 가평 23/32, 파주 23/31, 서울 24/32, 양평 24/33, 인천 24/30, 수원 24/32, 용인 24/32, 평택 24/33, 백령도 21/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40편 '무대위'

신작 19편·기존작 6편·상설 15편
9월 5일부터 '향연·묵향' 등 공연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국립극장이 12일 '2018~2019 레퍼토리시즌'을 발표했다.

오는 9월 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299일간 이어지는 이번 시즌에는 신작 19편, 레퍼토리(기존 우수 작품) 6편, 상설 15편 등 총 40편이 무대에 오른다. 올해 역시 이 시대 가장 주목받는 예술가들과의 '전통 실험'이 핵심이다.

이양희 공연기획부장은 이날 서울 중

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오름극장 리모델링과 지하주차장 공사로 인한 공간 활용 제약, 예상보다 길어진 극장장 공석 등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전통에 기반을 둔 현대 공연물을 만드는 기본에 충실하려 했다"고 시즌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향연'과 '묵향' 등으로 한국 무용매진 사례를 끌어낸 정구호 연출의 국립무용단 신작 '색동'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정 연출은 "'향연'이 70%의 전통에 30%의 모더니즘을 섞은 작품이었다면

'색동'은 모더니즘 비율이 50%까지 늘어난다"며 "다양한 전통춤 대가들과 안무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색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정 연출의 장기인 색의 유희가 그 어느 작품에서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무용단은 현대무용가 김철진과 함께 하는 신작 '더 룸'(The Room)도 준비 중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김철진은 2008년부터 벨기에 피프팅 무용단에서 활동하다가 인기 춤 경연 프로그램인 '댄싱9-시즌2' 우승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장르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창작 활동으로 주목받는 안무가다.

/오진희 기자 valere@